

연중 제 12주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제 1독서 : 예레 20, 10-13

제 2독서 : 토마 5, 12-15

복 음 : 마태 10, 26-33

순정이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마태 10, 27).

강론

“정부 창구 단일화?!”

박창신 신부 / 남원 천주교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주일이다. 조국 분단으로 피로 얼룩진 민족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날이다. 깊은 상처와 복잡한 사회문제를 만든 조국 분단은 우리 민족의 잘못이 아니었다. 전쟁의 패망국 일본이 분단돼야 마땅하지만, 세계를 지배하기에 급급한 미국에 의하여 한반도가 분단되므로 참혹한 살상과 친일 세력들의 부패고리와 인권 탄압, 그리고 착취와 억압의 불의한 사회를 만들고 말았다.

그러니까 조국의 분단으로 한 사회에서 공존해야 할 '좌와 우'가 원수로 되어 극렬한 살상을 자행했다. 그리고 빨갱이라는 매도 아래 민주노조 건설과 같은 민주화 과정을 탄압하고, 국가보안법으로 가난한 자의 권리를 찾아주려는 자들을 감옥에 넣지 않았던가!! 이것뿐인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색깔론으로 반민주·반민중 정권을 창출했고, 민주화 요구가 팽배할 때마다 남침우려나 용공분자들의 폭력이라며 민주화를 잠재웠다.

더욱 불행한 것은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분단은 분단의 원흉인 미국을 끌여들여 남침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세는 자주권과 문화의 침탈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자립을 막았으며 국군의 지휘권까지 훔쳐 쥐고 역사의 중요 순간순간마다 개입했고, 심지어 민족 대단결 통일마저 간섭하며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분단으로 이 땅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으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를 빨갱이나 폭력배로 몰아 국민들과 격리시켰고, 부패한 자신들을 오히려 정당화했다. 이로 인하여 소외 계층은 생존권을 위한 민주화 노력조차 할 수 없는 반민주 폭력 사회를 만들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의 기도는 바로 통일운동일 것이다. 통일운동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분단의 이득을 최고로 이용하며 소외 계층에게 억압의 굴레를 씌우는 정부 창구 단일화이고 또 하나는 민족의 분단으로 생긴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민중·민주' 통일인데, 이것을 부패한 저들은 적색통일이라 왜곡 선전하고 있다.

정부 창구 단일화가 아닌 상처를 치유하는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진실한 기도일 것이다.

소리

“해외 도피”

국내에서 무슨 짓을 해도 해외로 달아나면 그만인가. 32년 만에 출범한 문민정부가 휘두르는 사정의 회오리에 전직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도피성 해외 나들이가 부쩍 늘자 비리혐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인물들은 해외로 나가 이미 사정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으니 마지막까지 부정과 불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결같이 신병치료나 학술연구를 이유로 출국했는데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구겠는가.

스스로 자신의 죄과를 알았으면 법의 심판을 받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터인데 해외로 달아나면 그만큼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이런 인물들에게 국가 경영을 맡겼으니 이 나라의 민주화가 길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록을 받으면서 온갖 비행을 저지른 이들을 그대로 둘 것인가.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발상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비리와 부정으로 치부해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하도록 둔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새정부의 성역 없는 사정은 빛을 잃고 만다.

외교문제를 감안한 강제 구인이라던가, 해당국의 협조 아래 범인을 인도받는 방법, 여권 무효화 등 어떤 방법으로든 해외 도피·범법자들을 데려와 법정에서 세워야 한다. 범법자들은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돌아와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다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 국민들 품안에 안길 수 있을 것이다. □

순정이 산책



6.25 특집

“민족 화해, 통일을 기다리며”

문규현 신부 / 요촌 천주교회

우리는 분단에 면역되고 증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분단의 장벽에 싸여 미움의 자식으로 자라오면서 우리는 마침내 반신불수된 몸뚱아리를 정상이라 강변하는 거짓의 아버가 되었고, 사랑은 외면하고 증오는 강변하는 미움의 불구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선각자들을 쓰러뜨린 분단의 하수인들이 버젓이 살아 활보하도록 여전히 분단은 박수를 받고 통일은 오랏줄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은 그렇다 치고, 박정희 군사정권도 그렇다 치고, 전두환·노태우 정권을 끝으로 군사의 시대가 가고 문민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도 여전히 통일은 최고 분단은 법입니다. 북진통일의 논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흡수통일의 옷을 갈아 입고 분단시대의 유일한 진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간혹 통일이 거론된 적도 있습니다. 가뭄에 콩이 나듯 아주 가끔씩 정권의 필요에 의해 통일의 꿈이 등불이 되어 반짝이다가 꺼지면 더 큰 어둠이 되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유신정권이나 군사정권만이 아니라 문민정권에 와서도 이러한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단의 법과 제도는 시퍼렇게 살아 있어 정권은 법 위에 있어 통일을 말하면 칭송을 받고 백성은 통일을 말하면 벌을 받습니다. 통일이라는 말에는 언제나 냉소의 비판이 따르고 사람들은 쉽게 증오의 논리를 따르거나 무관심의 늪에 깊숙히 빠져들니다. 진실은 너와 내가 손을 잡고, 오른쪽과 왼쪽에 선 사람들이 마주 보며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는 일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통일이 있다면 서로가 공존하고 협력하는 통일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집어먹고 무너뜨리는 흡수와 통합만이 있을 뿐입니다.

평화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남과 북은 평화적 생존양식에 합의하기보다는 군사적 대결구조의 확대 재생산에 몰두하였습니다. 잡아먹기 위해서는, 잡혀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남과 북은 열심히 위기의 사다리를 끝없이 오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적 최대주의에 충분조건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와 대결하기 위해 강대국과 결탁하였고 한뼘줄을 치기 위해 외세와 공모하였습니다. 바람난 여편네는 이미 외간남자를 버젓이 집안에 불러들여 남편으로 공양해온 지 오래입니다. 예속이 국제주의란 이름으로 미화될 때 민족주의는 포기되거나 범죄시되어 왔습니다. 어떠한 동맹국도 민족보다 소중한

수는 없다라는 말은 대통령 취임사나 한 번씩 등장하는 수식어일 뿐이라는 사실은 민족의 생존문제를 앞에 두고 문민정부가 보여준 외세 의존적 자세와 무기력한 모습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평화와 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개혁과 민주주의의 자그마한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도, 민족의 생존을 공멸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도 한반도를 희망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평화와 통일의 결단과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이 만남입니다. 평화와 통일의 실천은 그 목표가 만남이며 과정이 만남입니다. 분단이 집단과 집단, 개인과 집단,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단절과 대립의 벽으로 버티고 서 있고, 마침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과 머릿속까지 파고들어가 시퍼런 날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토막내고 있다면, 분단의 극복은 당연히 이 날을 부러뜨리고 벽을 무너뜨리는 데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장벽을 딛고 선 만남, 분열된 자기와의 만남, 이웃과의 새로운 만남, 갈라진 민족과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만 분단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만남을 통해서만 통일이라는 거대한 만남이 이룩되는 것입니다. 형식과 절차에 관계없이 만나야 하고, 만남을 방해하는 어떠한 제도도 거부해야 하며, 만남을 막으려는 어떠한 법률도 무시해야 합니다. 미움과 분열을 극복한 화해와 일치법이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통일은 단결입니다. 그 목표가 단결이며 수단이 단결입니다. 강대국의 부단한 간섭과 지배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결입니다. 오만한 권력의 버릇을 바로잡고 주권자를 올바르게 삼기게 하는 힘 역시 단결 속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단결은 민족 분단에 작용하는 민족 외적인 강제에 대해 단호하되 배타적이지 않고 민족 내부의 이질적 요소에 대해 엄격하되 배척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으로 평화와 통일은 축제입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분열에서 일치로, 전쟁에서 평화로, 분단에서 통일로 건너가는 빠스카의 축제입니다. 분단의 고통 한복판에, 그 증오의 십자가 한복판에서 화해와 일치의 사명을 이루는, 민족의 부활인 통일을 체험하고 실현하는 그리스도를 사는 일입니다. 그 처절하고 눈물겨운, 그러나 더없이 찬란한 실천의 자리 한복판에 우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플러스 알파
생활용품 할인 백화점
선물용, 행사용, 판촉물, 단체 납품

김진태(마지아)
최운희(모니카)

코아백화점 ← 시청
☎ 84-5896, 72-8096(자)

청수종합 오토바이상사

대림·효성 전시 판매장
전문 수리점

백종술(빠드리시오)
이혜숙(가타리나)

동양APT 사거리 ↔ 구해성고 사이
☎ 251-3717

셀프 드라이클리닝

양복 5벌을 30분에
값은 7,000원

송호신(미키엘)
임춘심(마르타)

신일상가 APT
☎ (0653)855-1547

커피·양재
현대 홈패션 학원

- 초보자를 위한 무료 강습 실시
- 취미반·부업반·예비신부 우대

한순옥(요안나)
원대병원 앞
☎ 54-6890

5분 교리 ㉓

“성체성사(聖體聖事)”

새로 태어난 갓난아기가 성장하려면 모유와 음식과 또 여러 가지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세례성사로써 새로 태어난 신앙의 새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인 성체와 말씀과 교회의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 미사 때 우리는 밀떡과 포도주가 성변화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는다. 우리는 미사에서 예수의 만찬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거의 사건을 오늘에 재현시킨다. 미사 때 받아 모시는 성체는 우리가 세례로 다시 태어나 하느님의 왕국에 다시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재현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예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실 때 하시던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는 말씀을 듣고 즉시 이렇게 고백한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이 고백에 담긴 깊은 의미를 진지하게 새겨보아야 한다. 우리가 받아 모시는 주님의 몸과 피는 바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몸과 피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듯이 우리도 자신을 남에게 내어주는 사람으로 성장 변화되어야 함을 뜻한다.

순수 밀떡과 포도주가 실제 변화를 이루어 주님의 몸과 피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초자연 생명을 양육시킨다 함은 다른 뜻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처럼 십자가 희생을 사랑하여 남을 위해 바칠 때만이 우리 생명이 성장되고 존재의 변화를 이루게 된다.

그것이 진정한 실제 변화의 의미요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초자연적 성장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빵을 나누기 전에(11분) · 성체의 상징적 의미(10분 VHS)

교구 소식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6월21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제목-솔로몬의 말.

1. 사제 연수회 : 6월22일-24일 나바위 피정의 집, 주제-리더쉽, 강사-최영화 원장.
2. 전주지구 성서교실 신약편 수강자 모집 : 7월1일-8월21일, 개강-8월27일부터 매주(금) 오전10시, 오후8시, 등록비-40,000원(교재대 포함), 문의 85-0041(사목국).
3. 중·고 교리교사 하계 연수 : 6월26일-28일 나바위 피정의 집.
4. 천호 피정 안내 : 6월26일-27일 주제-신앙인의 기본 설계, 강사-송열섭 신부, 73-6600.
5. 교구 사회복지 이사회 : 6월25일(금) 오전11시 상지원.
6. 빛드레 신앙인 학교 : 6월21일(월) 오후7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강사-김광태 신부.
7. 젊은이들을 위한 나눔 묵상회 : 7월3일 오후2시30분-4일 오후5시 수류 성당, 대상-대학생 및 일반 청년, 회비-12,000원, 접수-6월21일~28일(선착순 40명), 문의 84-5290.
8. 성모 승천 전례미사곡 교육 : 6월28일(월) 오전9시30분-오후4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9.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6월25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축! 영명 : 21일(성알로이시오) 이태주 신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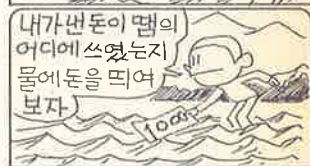
24일(성요한 세자) 김봉희, 왕수해, 한기호, 김요안, 양석현, 정성만 신부님.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소음 공해

소음은 오염원이고 하나의 환경문제로 인식돼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적음은 위험한 상황에서만 꼭 사용하고 되도록 사용 횟수를 줄이도록 합니다.

요심이 (1034) 김병오



김병엽(베드로) 신부 회갑연

· 일시 : 1993. 6. 27(일) 오전 10시30분(미사) 미사 후 축하식 및 축하연
· 장소 : 삼례 성당
천주교 삼례 교회 신자 일동

신규직원 채용공고

1. 모집부문 : 남자 일반사무직 0명
2. 응시자격 : 만 27세 미만 고졸 이상 병역필 및 면제자 3. 제출서류 : ①자필이력서(사진 부착) ②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③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④자격증사본(소지자 한함) ⑤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4. 제출기한 : 6.21-6.25(88-0194)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미리내 천주성삼수도회 성소모임

일시 : 6월27일 낮 12시-오후3시 반까지
장소 : 광주 가톨릭센터 401호
문의 : (0334) 74-1251~2
대상 : 수사 신부, 수사 지망 학생 또는 일반인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 여성
· 일시 : 6월27일 오후2시-5시
· 장소 : 삼랑진 본원
· 문의 : (0527)52-4241

지은 피아노 학원

유치부, 국교부, 일반 실기 및 이론 전문 지도 이 정 순(마리아) 인후2단지 정문 앞 ☎ 254-5460

효자 쇼파

고급 응접 세트, 가정용, 업소용 제작 및 천갈이 전문 조 종 복(비 오) 효자 테니스장 정문 앞 ☎ 223-4346

신선초 녹즙 및 생초 배달 판매

(수녀원 유기농법 재배 직송 공급) 국 정 수(대건 안드레아) 팍 영 미(마 리 아) 군산시 죽성동(청과시장) 수협 맞은편 늘 푸른집 ☎ 446-4316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 본당신부님 사제 연수회: 22일~24일까지.
미사안내-22일: 새벽미사, 23일-미사 없음.
● 영세자 면담: 25일-후 2시30, 26일-후 8시30분.
● 영세자 집중교리: 29일~7월2일 후 2시30분, 후 8시.
● 중·고교리교사 하계연수: 26일~28일 나바위.
● 모임: ①제대회(22일) ②빈첸시오회(24일 전 10시30분)
● 다음주일은 교황주일입니다(2차 헌금 있음)
● 금주 청소: 남노2반, 3반.
● 차주 청소: 중노1반, 2반.
□ 지난주 봉헌금: 869,930원 □ 교무금: 660,5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단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명 태

●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1. 금주: 바나의 성모 꾸리아(후 2시)
2. 명화 상영: "칭 그리스도인" 23일(수) 저녁미사 후.
3. 레지오 마리아 단원 교육: 26일(토) 오후 3시, 대상-레지오 단원일, 주관-레지오.
4. 차주: ①2차 헌금(교황주일) ②교부님 납부주일 ③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5. 감사합니다: 성당 스테인드 글라스 헌금-박요한(일백만원) 유데사(일백만원) 정마리아(일십만원)
6. 청년연합회 하계 수련회: 7월 17일-18일.
7. 진례 안내: ①교백성사(평일미사 전후) ②혼인반담(매주 토요일 오후 4시) ③유아 세례(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3시) ④성체강복 및 조배(매월 첫주 목요일 오전 10시) ⑤병자 봉성체(매월 첫주 금요일) ⑥차량 축성식(홀수달 마지막 주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812,71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 예비자 집중교리: 29일(화)~7월3일 매일 저녁 8시.
●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찬조금 접수: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 교황주일 2차 헌금: 다음주일.
● 병자 봉성체: 25일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유아 세례: 26일 오후 7시,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화합: ①성우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제대회-24일 오전 10시 ③빈첸시오회-26일 오전 10시
● 금주 전례: 해설-조옥래, 독서-정승환 씨 부부 봉헌-이창기 씨 가족.
● 차주 전례: 해설-정승순, 독서-김홍현 씨 부부 봉헌-손승환 씨 가족
□ 지난주 교무금: 574,580원 □ 교무금: 761,05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 삼 근

● 다음주일은 교황주일입니다. 2차 헌금 준비.
● 특별강론 법석규(마티아) 신부님 "부모의 사랑"
1. 참부모가 되는 길: 오늘 전 9시~후 4시, 회비-삼천원.
2. 교구 사제연수: 22일~24일, 22일 밤샘의 전례-강삼근 회장. 23일-한상갑 부회장,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바랍니다.
3. 본당 자제감사: 27일 공식미사 후 사목회 감사준비.
4. 중·고 교리교사 연수: 26일~28일 나바위.
5. 초·중·고 교리교사 희망자 박모니가 수녀님께 면접바람.
6. 환자 봉성체: 25일 전 9시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7. 회의: 울뜨레아-다음주 공식미사 후, 성가대-23일 어머니미사 후, 8. 성체회: 27일 10시 출발 천호 성지 순례, 9. 본당신부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24일부터 9일기도.
□ 지난주 봉헌금: 1,257,030원 □ 교무금: 1,013,0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한 동 옥

● 다음주일은 교황주일로 2차 헌금입니다.
● 모임: ①울뜨레아-26일(토) 저녁미사 후 ②성모회-다음주일 ③제대회-오늘 공식미사 후.
● 유아영세: 다음주일, 오전 9시.
● 본당발전을 위한 헌금: 오늘 모든미사중.
● 미사시간 변경: 주일 공식미사-10시.
● 감사: 제대꽃 봉헌-강 나나.
● 차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정광섭 ②김갑자, 봉헌-김한철 씨 부부, 7. 알릴: 본당 신자 전화번호부를 제작중이오니 변경된 전화번호나 연락할 수 있는 때때, 카본 번호 등을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93,100원 □ 교무금: 344,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영세식(미사중): 축하합니다.
2. 울뜨레아: 미사 후.
3. 반모임: 23일(수) 오전-황실, 오후-동신, 24일(목) 오전-기성화산.
4. 꾸리아, 청년회: 다음주일 미사 후.
5. 수녀원·회합실 어려운을 위한 모금 및 납부에 협조를 바랍니다.
6. 사제 연수회: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미사가 없습니다.
● 금주 전례: 장명순, 정준성, 독서·봉헌: 임영미, 성호철.
● 차주 전례: 손인호, 이완자, 독서·봉헌: 방영선, 고영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중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연중 제 12주일!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 성모회: 6월20일(오늘) 공식미사 후.
● 사제연수: 6월22일(화)~6월24일(목) 이 기간은 미사 없고, 말씀의 전례 있음.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신자들의 많은 기도바랍니다.
● 중·고 교리교사 하계연수: 6월26일~28일(나바위)
● 레지오 마리아 단원교육: 6월26일(토) 오후 3시~5시(전동 성당)
● 다음주일은 교황주일 2차 헌금 있음.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상 호

● 오늘은 연중 제 12주일입니다. FAX 223-3821 사목회장이 동 섭
1. 자모회: 6월21일(월) 10시미사 후.
2. 꼬미시움: 6월26일(토) 오후 3시 교육관.
3. 유아 세례: 6월27일(다음주일) 오후 4시.
4. 애령회: 6월20일(일) 공식미사 후 교육관(진에평회원 참석요망)
5. 사제연수회: 6월22일-24일(22-24일까지) 미사가 없고 새벽 6시에 말씀의 전례만 있습니다. 이기간 동안 사제연수를 위해 신자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 감사헌금: 5만원(익명)
7. 권율리엠타 수녀님께서 15-24일까지 휴가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8. 미사 안내: 금주-가난한 이, 사랑하옵 차주-평화의 모후, 티없으신 어머니
□ 지난주 봉헌금: 1,424,440원 □ 교무금: 1,503,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연중 제 12주일(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1. 오늘 2차 헌금: 초, 중, 고 학생들을 위하여(매월 셋째주일)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읍시다.
2. 다음주(교황주일): 2차 헌금.
3. 다음주 공식미사 후: 사랑화, 요셉화, 4. 미사 안내: 22일(화)-새벽미사, 23-24일-저녁, 말씀의 전례(사제연수) 22일-24일, □ 지난주 교무금: 813,000원 □ 교무금: 817,000원
5. M.E 소개 모임: 6월27일 공식미사 후, -10년 이상 된 부부는 모두 참여해주시기 바랍, -특별히 의직교우 부부님을 환영합니다.
6. 인사 나누기: 미사 전후, 주위에 있는 교우와 인사, 친교를 맺읍시다.
7. 청소년 봉사: 2구역 전례.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1. 모임 안내: ①성전건축위원회, 바자회위원회-공식미사 후, ②반회장 준비 모임: 25일(금) 10시 미사 후.
2. 그리스도 공동체 수련회(M.B.W) 기초 과정, 28일(월)-30일(수) 3일간, 오전 9시-오후 5시.
3. 차주 모임: 반석회, 요셉회, 사목회, 교황주일(2차 헌금 있음)
● 금주 전례: 해설-이인숙, 독서①이준영 ②손선희 봉헌안내-강인성 부부, 김일수 부부.
● 차주 전례: 해설-이한은, 독서①김창진 ②이금연 봉헌안내-김형섭 부부, 한갑용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329,240원 □ 교무금: 1,139,000원